

진현환 1차관, “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지원”

- 지난 8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가이드라인 공개 ...
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인 대전 둔산지구 찾아 현장 점검 -

-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6일(금)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였다.
- 대전 둔산지구(8.7백만m², 94년 준공)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,
 -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 ‘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’을 공개하며,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- 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,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.
 -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11월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,
 - 면담 이후에는 둔산지구 등 대전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여, 노후된 도시인프라 및 주거시설 등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였다.
- 진 차관은 “현재까지 1기 신도시 외에 해운대 1·2지구 등 9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올해 11월에 대전 등 내년 상반기까지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절차에 착수할 계획”이라면서,
 - “정부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노후계획도시 뿐 아니라 둔산 등 지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4. 9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